

건설산업동향

CERIK

- ◇ 미래지향의 정책대안제시
- ◇ 인간존중의 건설문화창조
- ◇ 현장중심의 연구사업추진

발행처 :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0-13 보전빌딩 12~14층 발행인 : 홍성웅 등록 : 1995년 6월 19일(제16-1149호) TEL : (02)3441-0600, FAX : (02)3441-0808

제 24호·1998.3.23

버블 붕괴 이후 일본의 건설산업 구조 변화

권 오 현
(CERIK 부연구위원)
변 재 현
(CERIK 연구원)

〈요 약〉

- IMF 체제 하에서 우리 건설산업의 향후 진로를 가늠해 보기 위해, 일본이 90년대 초 버블 붕괴로 큰 혼란에 빠졌던 상황에서 일본의 건설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였고, 산업구조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 보는 것이 유용하리라 판단됨.

산업구조

- 중소 토목업체 증가 : 토목분야에서는 중소기업체가 91년 한해 동안 3,600개사 정도 증가하는 등 업체수가 크게 늘었고, 건축분야에서는 중견 및 대형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6% 정도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였음. 토목업체의 증가는 경기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부 발주 토목공사가 증가한 결과임.
- 중층 하청구조의 심화 : 토목분야의 하청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93년 68%에 이르게 되면서 61% 수준에 머문 건축분야를 추월하였음.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체의 전문화 진전과 경영 자원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려는 경영 전략이 채택되었기 때문임. 이에 따라 각 기업의 경영관리 부문이 상대적으로 비대해졌고, 현장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는 기업들은 약체화되었음.
- 수익률의 저하 : 토목이나 토목-건축에 비해 건축, 설비 및 전문건설 분야에서 수익률이 급격히 저하되었으며, 특히 대기업에 비해 자본금 1,000만엔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수익률 저하가 두드러졌음. 이처럼 경상이익률이 저하된 것은 일반관리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며, 소규모 기업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.